

01 교회소식

30년 전, 태양이 작열한 때 개척

교회 개척 30주년을 맞이까지 하나님 영광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대반전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다.

02 생명의 말씀

보배 중의 보배는 영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며,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것, 변개함이 없는 믿음이다.

03 특집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만민의 역사

우리 교회의 30년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다. 이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 역사를 상고해 본다.

04 간증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

주님을 만난 뒤 삶이 변화하고 축복이 넘친다는 마산만민성결교회 김석현 집사와 일본 동경만민교회 나카무라 유이 자매 간증.

# 만민뉴스

제543호 2012년 7월 2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대반전의 시작점”

### 만민중앙교회 개척 3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



지난 7월 22일 오후 3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개척 3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히 1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사진 ①).

이 목사는 “오늘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개척 당시에 비해 지금은 너무나 큰 성장을 이뤘다. 성도 수와 믿음의 분량은 물론, 변화하는 속도도 다르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권능이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반을 갖추게 하시려고 지난 30년간 많은 연단을 거치게 하셨고 이제 때가 이르러 세계를 향해 창대하게 뻗어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개척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1982년 개척예배 때 선포한 말씀이 바로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다. 만민중앙교회 30년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다. 단돈 7천원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이 있기에 항상 담대할 수 있었다.”라며 “지금까지도 하나님 영광이 크게 나타났지만 앞으로 나타날 대반전의 역사는 전과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성도들 모두가 신속히 온전한 믿음을 이뤄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관련 설교 2면).

예배 후 이어진 축하공연은 신푸름, 조소영 자매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순서는 파워워십팀·글로리워십팀·사랑울동단의 오직 믿음으로 일군 만민의 역사를 연상케 하는 ‘믿음으로 걸어온 길’ 공연이었다(사진 ②, ⑤,

⑦). 이어 ‘하나님의 연회’ 찬양에 맞춰 천상의무용팀 오고무(五鼓舞)와 새렘국악선교단 북주자, 닛시오케스트라 타악주자의 북연주가 어우러진 공연은 축하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사진 ③).

그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함께 천상의 소리선교단, 할렐루야반주팀이 ‘목자의 성’을 찬양해 감동을 자아냈고(사진 ④),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찬양선교사가 인도한 ‘JESUS’ 회중 찬양으로 금관광상블, 예능반주단과 더불어 전 성도가 삼위 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사진 ⑥, ⑧).

피날레로 살롬성가대와 닛시오케스트라, 출연진 전체가 나와 ‘영광 3’을 찬양함으로

교회 개척 30주년을 맞이까지 큰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교회 개척 30주년을 자축하는 이날,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하며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음에,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하나님 권능 가운데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 또 감사를 올려드렸다. 또한 중생·성결·신유·부활·재림, 성결의 오중복음으로 더욱 신속히 변화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이를 것을 소망했다.



실 수 있음을 믿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심히 기뻐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부르셨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 약속도 다 이루셨습니다.

셋째로, 변개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적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막 11:24, 약 1:6~7).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린 시절에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과 형들이 묶은 곡식 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 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지요.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축복의 꿈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요셉에게 다가온 현실은 영광이 아니라 기가 막힌 연단이었습니 다.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아가 종좌인의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믿어 드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살에 종으로 팔려갔던 한 소년이 기구한 13년의 세월을 보낸 끝에 강대국 애굽의 2인자가 됐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영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꿈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을 궁구하며 성실히 주어진 일을 행했지요. 요셉이 겪은 어려움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시위

대장 집에서 가정 총무를 감당할 때는 대저택의 살림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을 때는 정치나 국가 경제에 능통한 사람들을 만나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었지요. 고난과 절망의 세월처럼 보였던 이 13년은 실제로는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사람이 원하는 응답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곧 이루리라 하실 때, 몇 달 후에 성취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 안목으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시지요.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믿은 것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시지요.

3. 오직 믿음으로 달려온 길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섭리를 우리는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단, 열왕과 열방이 몰려와 구원받고 온 세계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이런 비전들을 이루고자 날마다 기도했지요. 그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 듯했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우겨 싸인 것 같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요.

1991년에는 당시 속해 있던 교단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급속하게 부흥하다 보니 교단 내에서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 다. 또 불의한 사람들의 요구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미움을 받았지요. 결국 교단법이 무시된 불법적인 절차 속에 저의 목사직을 파직하고 교회를 제명한다는 일방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감사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섭리가 드러났습니다. 오중복음을 토대로 교단을 창설하게 됐고 예전과 달리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성결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계에서 두루 인정받게 됐으며 지속적으로 부흥의 열매를 내어 1993년에는 개척 10여 년 만에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지요.

그러던 중,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다시 한 번 큰 시련이 왔습니다. 주의 종과 레위족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인 자신들의 불의함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무리를 지어 교회를 떠났지요. 뿐만 아니라 거짓 소문을 지어내서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물론, 교계와 세상 언론, 방송사에까지 유포했습니다. 교회를 훼손하려는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재앙이나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빛의 속도로 임하는 축복이라고 하셨지요. 이 사건의 여파로 재정 집합이 어려워도, 심히 애태우는 나날 속에 제 몸의 기가 빠지고 다리가 휘청거려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매주 설교 때마다 단에서 담대하게 축복과 영광을 선포했지요. 여러분은 그 결과를 잘 아십니다.

세 차례 시험이 지나고 2000년이 되자 무안만민교회에서는 짜고 쓴 바닷물만 나오던 샘에서 단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창조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성회

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해외 연합대성회의 시대가 열려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세계를 향해 펼쳐지기 시작했지요. 초대 교회 당시 예루살렘의 기독교 핍박은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련도 권능의 사역을 세계로 전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등지에서 대형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만,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인파가 모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개척 당시 명하신 대로 복음의 땅 끝,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성회뿐만 아니라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WCDN과 만민국제신학교 MIS가 조직되면서 세계 선교 비전이 더욱 구체화됐지요. GCN 방송을 통해 방송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고 각국으로 전파하는 문서선교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오대양 육대주 구석구석까지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파하는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 이후 3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셨고 늘 행동함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축복 속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연단과 기다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꾼들이 되심으로 귀한 영광의 도구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GCN 방송 커버리지

경상남도 남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랐습니다.

1994년 5월, 군 제대 후 교회에 등록했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인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와 생명력 넘치는 설교 말씀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성격으로 바꿔 놓았지요. 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서던 청년 시절, 무분별한 카드 사용과 보증, 무리한 사업시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카드 대출, 주식 투자 등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2001년 11월, 저는 선교원 교사이며 교회 반주자인 안수경 집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많은 부채가 있었기에 아내 월급은 대부분 부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채를 갚고자 카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한 달 만에 원금은 반 토막 났고 결국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당시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부채 일부를 상환한 뒤 2008년 2월, 건강식품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예상보다 매출이 많아 빠르게 안정됐지요. 그러자 다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터뜨려서 부채를 정리



김석현 집사 (마산만민성결교회)

#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축복이 넘칩니다”

하자!’ 저는 또다시 돈을 끌어 모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금융 대란으로 주식은 끝없이 추락했고 설상가상으로 불경기로 인해 점포 매출까지 반 토막 났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하지만 그때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재 사건으로 신앙 재정립, 축복의 그릇 만드니**

2008년 11월, 운영하는 점포에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지혜로 행한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올리며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화재는 제가 운영하는 점포 바로 옆 건물에서 일어났고, 건물 사이는 불과 8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이 옮겨 붙지 않은 것입니다. 순간 늘 만민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시는 당회장님이 떠오르며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통해 축복의 비결을 누누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도를 걷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온 지난 시간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즈음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6주간 진행됐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던 저는 매시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신앙을 재정립하니 넉넉히 이기리라는 확신이 주어졌지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2009년 9월, 저는 점포를 정리하고 당회장님께 축복 기도를 받은 후 (주)서울중앙인슈 마산 지점에 입사했습니다. 값진 연단을 받은 자로서 축복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지요. 2주 교육 후 영업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첫 달에 회사 전체 2등을 했고, 입사 1년이 지난 후에는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승진하는 등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번은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이 다시 꿈틀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이전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절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다짐하며 회개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입사 1년 후부터 십의 이조를 드리고 각종 헌금과 예물을 정기적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섬겼습니다.

2011년 11월, 저희 가족은 당회장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만기된 적금을 타서 선교예물로 십고 축복기도를 받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달에 신한생명 전국 1위를 차지하며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해 연봉 4억 돌파, 최우수사원 표창장, 최우수업적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지요. 뿐만 아니라 내 집도 마련하고 그동안 물질의 어려움으로 갖지 못했던 아이를 갖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목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 넘치게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카무라 유이 자매 (일본 동경만민교회)

## “주님을 영접하니 모든 것이 감사해요”

2011년 어느 날, 친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저서 『십자가의 도』, 『천국』(상)(하), 『지옥』 등 여러 권을 전해 주었습니다. 무교 집안에서 자란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지요.

그해 12월,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동경만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지금껏 당연하다 여긴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쓰니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이 넘쳤지요.

믿음의 체험도 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기도로 바닷가의 짠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 권능의 ‘무안단물’을 얼굴에 바른 후 심했던 여드름이 말끔히 치료된 것입니다. 여동생은 ‘무안단물’을 마시고 편도선을, 남동생은 당회장님 환자기도를 받은 후 3년 된 꽃가루

알레르기를 치료받는 등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교회에 관심조차 없던 부모님이 교회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뀌셔서 8월 6일부터 개최되는 서울만민중앙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수련회를 통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장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920-4512, 010-3343-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번지 중앙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백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